

한국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권진, 박수빈, 김진욱

예명대학원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 기혼남성의 생활시간구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권 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수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진욱****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정교수

주제분류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주제어 행복, 일가정양립, 기혼남성, 생활시간조사

요약문 이 연구는 한국의 기혼남성들의 지난 20년간의 생활시간 변화를 살펴보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았고, 실제로 일가정양립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시간에서의 필수시간과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의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 연구는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중 1999년, 2009년, 2019년의 세 자료를 활용하여 20년간의 시간동안 생활시간의 변화를 기술적으로 탐색하였다. 이후 2019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행복을 시간부족, 삶의만족, 여가만족의 합으로 조작하였고, 이에 대한 기혼남성 전체 및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행복에 대한 평균차이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상용직인 경우에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일의 여가시간이 행복과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였다. 유급노동시간은 행복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무급노동시간 역시 남성의 행복을 낮추는 기제였다. 세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서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벗어난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행복과 부적이 관계로 나타나 노인의 삶에서 소득보장과 일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이 논문은 2017년도(NRF-2017S1A5A2A01024621)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겪으며 수많은 사람이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였다. 촘촘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초연결의 한국 사회는 비로소 그 간격을 벌려야 할 정도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였고, 바쁘고 경쟁적으로 살아야만 내일이 준비된다고 믿어왔던 개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잠시 멈춤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공장과 생산이 멈춤으로 서 보게 된 파란 하늘은 코로나19가 사람에게 준 또 다른 교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가? 고대의 철학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동의가 되는 개념은 바로 행복일 것이다. 그 개념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인류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무한한 경쟁이 열려있는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행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는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소득과 경제적 안정이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이를 방증하듯, UN의 세계행복보고서와 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와 같이 국제적인 차원의 행복지수를 분석한 자료들에서는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순위는 61위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7계단 하락한 것이다. 순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에서 ‘건강 기대수명’이나 ‘1인당 GDP’와 같은 정량적 지표의 성적이 그나마 나을 뿐이고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정성적 지표는 그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세계행복보고서, 2020). 2020년도의 ‘더 나은 삶 지수’에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을 측정하였는데,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영역은 ‘주거’, ‘직업’, ‘교육’, ‘시민참여’였으며 그 외 ‘커뮤니티’, ‘삶 만족’ 등의 영역들은 평균 이하였다. 특히 ‘기대수명’, ‘지식과 역량’, ‘개인적 안전’ 같은 영역의 점수가 높은 반면 ‘사회적 관계’, ‘일과 삶의 균형’, ‘주관적 웰빙’ 등과 같은 영역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OECD, 2020). 최근 들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정책적으로도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시작단계일 뿐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행복은 점차 주목받고 있다. 측정 차원에서 ‘주관적 웰빙’이나 ‘삶에 대한 만족’과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풍요수준을 넘어서서 주체가 느끼는 다양한 측면을 함께 조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변미리 외, 2015).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사회의 행복이 소득이나 건강기대수명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들은 괜찮으나, 삶에서 실제로 느끼고 인식하는 차원의 지표들에서는 상당히 낮다는 국제비교 자료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 7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들(행복감,

선택의 자유, 삶만족)을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G20에 해당하며 해당 데이터에 수록된 11개 국가들 중 한국의 행복감은 11위, 선택의 자유 9위, 삶 만족 10위로 나타난 바 있다(김진욱 외, 2020).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적인 차원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느끼고 누리는 차원의 행복은 낮은 편에 속한다.

한편 한국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행복을 살펴보았을 때, ‘더 나은 삶 지수’에서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다. 삶의 만족도 차원에 있어서 여성의 삶의 만족 점수 평균이 더 높다는 점이다. 여전히 가부장성이 강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도 어렵고 돌봄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갈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집단이 여성이다(장미나·한경혜,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여성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t-test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김진욱 외, 2020). 바꾸어 이야기하면 남성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더 누리고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옹호되어지는 존재이기는 하나, 행복감을 느끼는 측면에서는 더 떨어진다.

연구의 측면에서 남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대상이다. 성(gender)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들은 남성의 행복추구권, 부성권 등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면서 가정 내 남성의 역할을 독려하고,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가정의 양립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여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특히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사회활동 또는 가정생활의 주체로서 선택 가능하기 위하여 남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남성에게 대한 연구도 더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중요한 주체인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생활시간조사는 평일과 주말의 생활세계를 인식이 아닌 행동에 기반하여 보여주는 실증데이터로서, 한 개인의 24시간을 다양한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거나 개인의 심리나 인식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생활시간이라는 시간적 차원의 변수를 투입하여 행복감과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행복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법, 성별 행복감의 차이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또한 생활시간의 개념적인 구분과 행복의 논의에서 ‘시간’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 후 분석의 절차를 밝힌다. 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로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한국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추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 기혼남성을 2,30대와 4,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행복감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투입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기혼남성 전체와 각 그룹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논의

1. 행복에 대한 개념적 이해

행복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 토론하던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최영준 외, 2019), 경제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다차원적인 개념인 행복에 대한 정의는 쉽지 않다. 행복을 정의하고자 할 때,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행복의 근원(locus)을 인간 내적인 것에서 찾을 것인지, 혹은 외적인 것에서 찾을 것인지의 문제이며, 둘째는 행복의 성격(focus)을 주관적인 만족이나 쾌락으로 볼 것인지(hedonism) 혹은 개인이 가진 가치나 역량의 추구로 볼 것인지(eudaimonism)의 문제이다(구교준 외, 2015).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의 행복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지적·도덕적 활동’으로, 개인의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virtuous life). 인간이 지닌 덕목에 대한 성숙의 길 자체로 정의된다(문진영, 2020). 그리스 시대 이후 중세 시대까지 행복의 고전적 의미는 ‘행운’으로 집약되었는데(Kesebir et al., 2013; 구교준 외, 2015), 이는 행복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God) 혹은 하늘로부터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배움을 통해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행복의 근원이 작게나마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Oishi et al., 2013), 그의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에 행복의 근원으로 인간 외적인 요인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인 요인을 강조하였다(Kesebir and Diener, 2008; 구교준 외, 2015). 종합하면 인간 외적인 요인에 초점이 있기는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인간 내적인 요인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었다.

행복을 인간 외적인 요인에서 찾던 관점은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기독교의 영향으로 중세 시대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종교적인 믿음과 신의 축복을 통해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문진영, 2020).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이 신을 닮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전환점을 맞게 되고, 16-17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 내적인 요인에 집중하게 되었다(McMahon, 2006; 구교준 외, 2015). 근대에 들어 행복이 내면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수많은 심리학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긍정심리학자 Seligman(2002)은 “우리 내면의 많은 상태들은 우리의 자유 의지에 따라 관리가 될 수 있다. 만약 내면의 상태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문진영, 2020). 이렇듯 현대인에게 행복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구교준 외, 2015), 행

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외부의 조건도 무시할 수는 없다(문진영, 2020).

다음으로 ‘헤도니즘(Hedonism)’은 행복은 쾌락에서 온다고 하는 입장이다. 앞서 나온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의 전체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문진영, 2020). 이들의 주장은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이념적 가치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갖는 개념적 모호성을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으로 확립하고 보다 구체화된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된다(강상준·문진영, 2018).

‘유다이모니즘(Eudaimonism)’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virtuous)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입장이다. Eudaimonism에서는 도덕과 덕성이 있는 삶을 통해 행복을 달성할 수 있으며, 재물의 축적보다는 끊임없는 자기수양과 덕성의 개발을 중요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Lu, 2001; 구교준 외, 2015).

경제학 분야에서는 공리주의적 가치와 맞물려 Hedonic 측면의 접근을 중심으로 행복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Eudaimonia에 기반하여 행복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는 Kahneman, Diener 등의 학자들의 Hedonic psychology라는 행복심리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학과 심리학의 상반된 경향성이 학문 영역 간에 주제의 교차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행복에 관한 연구를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강상준·문진영, 2018).

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적·사회관계적·사회심리적·환경적·제도적·인구사회학적 요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소득과 주택, 교육수준, 여가, 직업 등이고, 사회관계 부분으로는 친구, 이웃과의 관계, 결혼생활, 가족생활 등이며, 사회심리적인 것으로는 성격과 문화를 들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것에서는 환경, 재난, 거주지, 치안 등이 있으며, 제도적인 것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보장, 인구사회학적인 것에서는 건강, 연령, 성별 등이 있다(김승권 외, 2008).

그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적 지표들로 하여금 주로 설명되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소득이 있다. 경제학자 Paul Samuelson은 행복공식을 통해 소득과 행복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강상준·문진영, 2018). 그러나 Duesenberry(1949)의 ‘상대 소득 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에 입각하여 이에 반박하는 Esterlin(1974)의 ‘이스털린 역설(The Esterlin Paradox)¹⁾’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요인에

1) 일정 시점에서 분석(cross-section analysis)했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행복하다. 그러나 시계열적으로 분석(time series analysis)을 해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이후에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매우 미미한 증가 수

대한 수많은 논쟁과 연구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관련해서는 U자형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다가 중년기(40-50세)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후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Blanchflower and Oswald, 2008; Cheng et al., 2016; 안주엽 외, 2017). 성별로는 선진국들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행복도를 보이므로(Oreopoulous and Salvanes, 2011), 양성평등이 보장된 국가일수록 여성의 행복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Krueger et al., 2009; 최영준 외, 2019). 건강의 경우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은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lmore and Luiart, 1972; 최영준 외, 2019). 사회적지지 또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Rudrick and Kravetz, 2001), 가족,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관계가 많을수록 건강하다(Myers and Diener, 1995; 김승권 외, 2008).

이외에도 일과 개인의 생활을 균형있게 병행하는 일-삶의 균형과 행복과의 관계를 본 Signy와 Wu(2009)가 있으며, 세대 간 일-삶의 균형을 살펴본 이재완과 강혜진(2018)은 전 세대에 걸쳐 일-삶의 균형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박미석 외, 2019).

3. 생활시간과 행복의 관련성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한 자원이다. 그러나 시간의 활용 측면에서는 사뭇 달라진다(Hektner et al., 2007). 시간의 활용은 성별, 연령대, 직업군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평일과 주말의 활용 양상이 크게 다르다. 이러한 변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199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2019년까지 5년 단위로 공개되었다. 즉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생활시간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통계청에서는 생활시간을 필수 시간과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필수시간은 수면시간과 식사, 개인 건강관리 등과 같이 개인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의무시간은 일, 학습 등 일반적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이며, 여가시간은 필수, 의무시간을 제외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다(통계청, 2019).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복을 증가시키는 시간으로는 여가시간이 대표적이며, 행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유급노동시간이 지목된 바 있다(Juster and Frank, 1991; Robinson and Godbey, 1997; 주은선, 2016). 우선 여가시간이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가시간이 직접적으로 행복감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김경식 · 이루지, 2011; 박민정, 2015; 이우재, 2006; 이유진 · 황선환, 2018), 한편으로 여가시간 자체가 행복감을 높인다기보다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인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준을 보인다. 이처럼 소득과 행복의 관계가 단층적인 분석과 시계열적 분석 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현상을 ‘이스털린 역설’이라고 칭한다(문진영, 2012: 55).

이 더욱 주요한 부분이라는 주장이 있다(신종화, 2005). 여가시간이라는 자유롭고 재량적인 시간을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자체가 행복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유급노동 시간은 생활시간 중 의무적인 성격의 시간으로서, 행복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급노동 시간의 길이가 길수록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이것이 곧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낮춘다는 것이다(Virtanen et al., 2012). 한국의 경우 이미 ‘피로사회론’ 또는 ‘일중독사회’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긴 유급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설명력이 큰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이 겪는 시간적 압박감은 행복감을 낮출만한 사회구조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효용이론에 따르자면 노동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이 늘어나고 이로인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리는 결국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을 올린다는 것으로 단순 귀결될 뿐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긴 노동시간과 짧은 휴가는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실증 분석결과가 존재한다(주은선, 2016).

생활시간과 행복의 관계에서 필수시간에 대한 고려도 빼놓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필수시간은 수면시간 및 자기관리시간(식사, 개인위생, 의료서비스 받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필수시간은 개인의 가치와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일이 중심인 사람은 유급노동시간이나 자기계발과 같은 의무적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할 것이고, 여가를 통한 봉사나 자기만족이 중요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따라서 필수시간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의무시간이나 여가시간과의 제로섬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필수시간에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이 포함됨에 따라서 외모 또한 곧 경쟁력이라는 풍조가 반영되는 현상 또한 행복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시간 구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려할 요소는 무급노동시간이다. 무급노동시간은 가사와 돌봄(자녀 / 성인)으로 구성되어진다. 최근 한국에서는 성평등한 삶과 일상의 방향성을 통하여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할 정도로 남성의 무급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4차)에서는 저출생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로 가정 내 평등한 무급노동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급노동의 수행이 여전히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태를 명시하였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남성의 가정내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향으로서 남성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확충하고 관련 혜택을 늘리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대한민국정부, 2020). 핵심적인 문제는 남성들의 가사와 자녀돌봄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생활에서 보여지는 무급노동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급노동시간이 일가정양립 달성의 구체적인 지표로 반영될 필요가 있고, 일가정양립의 달성이 행복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김경미 · 계선자, 2018)를 고려했을 때 남성의 무급노동시간과 행복관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근간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기혼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간 차원의 변수들(필수시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을 함께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혼남성의 일가정양립과 생활시간 구조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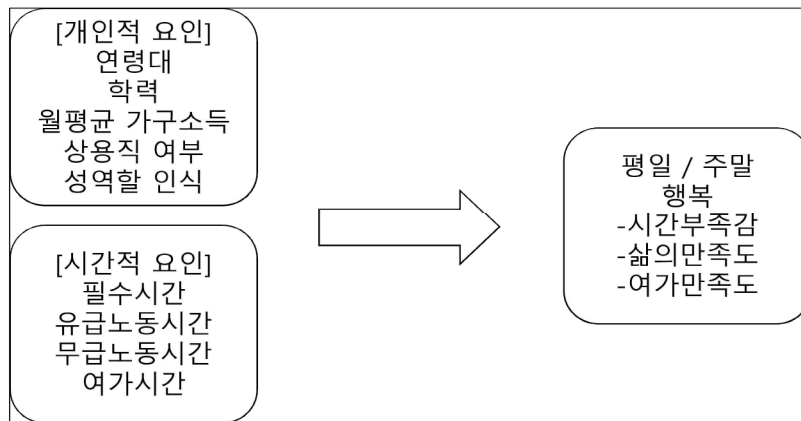
- [연구문제 1.] 한국 기혼남성의 지난 20년간의 생활시간은 어떠하였는가?
- [연구문제 2.] 한국 기혼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각 세대별 한국 기혼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가?

III. 연구방법

1. 연구 데이터 및 연구모형

이 연구는 한국 기혼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되 기존 연구에서 많이 고려되지 못했던 시간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용한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이다. 우선 연구문제 1에 답하기 위하여 1999년도 데이터와 2009년 데이터, 2019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기혼남성의 필수시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의 변화추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은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분석의 실제 대상자는 남성, 유배우,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자들로만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행복의 측정지표로서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부족감과 삶의 만족, 여가 만족이라는 세 개의 문항의 합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삶의 만족 또는 여가 만족이라는 단일 문항을 행복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함이다. 아울러 2019년 이전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개인 인식의 문항이 더 적었고, 2019년 데이터가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데이터인 점을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설명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선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대,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상용직 여부이며, 개인의 인식과 태도로서 성역할 인식 변수를 함께 투입하였다. 다음으로는 시간 요인으로서 필수시간(수면+자기관리 시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가사+돌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행복감이며 시간 부족(높을수록 시간에 여유로운 방향), 삶의 만족(높을수록 만족), 여가 만족(높을수록 만족)을 합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생성하였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분석하였고, 생활시간 중 행복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필수시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의 변화추이를 기술적 통계분석으로 살펴보고 남성의 생활시간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후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혼남성을 2,30대, 4,50대, 60대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행복 및 그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남성의 생활시간 중 어떠한 변수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 변수 설명

구분		변수	측정
독립 변수	개인적 요인	연령대	2,30대=1 4,50대=2 60대 이상=3
		학력	초졸 이하=1 중졸 이하=2 고졸 이하=3 전문대 이하=4

			4년제 대학교 이하=5 대학원 이상=6
		월평균 가구소득	구간에 따른 연속변수
		상용직 여부	상용직=1 그 외 =0
		성역할 인식	높을수록 비전통적 인식 (리커트 4점)
	시간적 요인	필수시간	수면+자기관리 시간
		유급노동시간	유급노동 관련 시간의 합
		무급노동시간	가사+돌봄 시간
		여가시간	여가관련 시간의 합
종속 변수	행복	시간부족	높을수록 여유(리커트 4점)
		삶의 만족	높을수록 만족(리커트 5점)
		여가 만족	높을수록 만족(리커트 5점)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기혼남성으로서, 이들의 생활시간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9년, 2009년,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연구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1999년의 경우 30대가 32.0%로 가장 많았고,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가 42.1%로 가장 많았다. 직업에 있어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군이 19.1%, 사무 종사자 8.6%, 서비스 및 판매 종사군이 15.9%,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 56.3%, 직업군인 0.2%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는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가 55.5%로 가장 많았다. 2009년에는 40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다. 학력으로는 고졸이하가 39.3%로 가장 많았다. 직업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군이 21.1%, 사무 종사자 14.9%, 서비스 및 판매 종사군이 15%,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 48.9%, 직업군인 0.2%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는 임금근로자가 62.2%로 가장 많았다. 2019년도에는 40대가 27.7%로 가장 많았고, 월소득은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7.9%로 가장 많았다. 학력으로는 고졸이하가 32.1%로 가장 많았다. 직업에 있어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군이 21.2%, 사무 종사자 17.1%, 서비스 및 판매 종사군이 13.0%, 농림어업숙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 48.1%, 직업군인 0.7%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는 임금근로자가 68.4%로 가장 많았다.

기혼남성 표본의 변화추이로 보자면 2019년으로 올수록 고연령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학력 역시 고졸 이하가 줄어들고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많아지고 있었다. 직업으로는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졌고 종사상 지위로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1999 (N=20,837)		2009 (N=9,944)		2019 (N=12,156)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대	20대 이하	1,252	6.0	320	3.2	212	1.74
	30대	6,670	32.0	2,408	24.2	2,064	16.98
	40대	6,189	29.7	3,478	35.0	3,366	27.69
	50대	3,923	18.8	2,176	21.9	3,234	26.6
	60대 이상	2,803	13.5	1,562	15.7	3,280	26.98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조사 안됨		1,300	13.1	296	3.4
	200만원 미만			3,190	32.1	764	8.7
	300만원 미만			2,844	28.6	1,366	15.5
	400만원 미만			1,436	14.4	1,522	17.3
	500만원 미만			558	5.6	1,576	17.9
	500만원 이상			616	6.2	3,292	37.3
학력	초졸 이하	3,427	16.5	802	8.2	686	5.7
	중졸 이하	3,078	14.8	988	10.0	1,002	8.3
	고졸 이하	8,781	42.1	3,868	39.3	3,888	32.1
	전문대졸 이하	1,503	7.2	1,460	14.8	2,170	17.9
	4년제졸 이하	3,338	16.0	2,164	22.0	3,344	27.6
	대학원 이하	710	3.4	556	5.7	1,008	8.3
직업	관리자	750	3.6	640	6.4	678	5.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27	15.5	1,462	14.7	1,890	15.6
	사무 종사자	1,785	8.6	1,480	14.9	2,084	17.1
	서비스 종사자	1,140	5.5	508	5.1	648	5.3
	판매 종사자	2,172	10.4	982	9.9	938	7.7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3,449	16.6	902	9.1	1,164	9.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3,122	15.0	1,426	14.3	1,538	12.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3,454	16.6	1,596	16.1	1,818	15.0
	단순노무 종사자	1,696	8.1	930	9.4	1,310	10.8

	직업군인	42	0.2	18	0.2	88	0.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11,571	55.53	6,180	62.2	8,316	68.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86	6.65	922	9.3	1,104	9.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428	35.65	2,754	27.7	2,592	21.3
	무급가족종사자	452	2.17	88	0.9	14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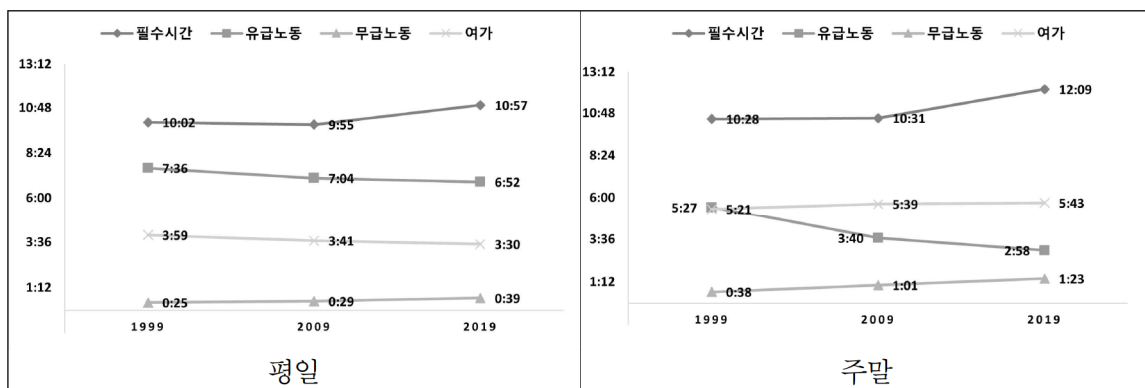
2.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변화 : 1999년-2019년

1) 전체 기혼남성 생활시간 변화

기혼남성 전체의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시간 변화를 평일과 주말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일의 경우 필수시간 증가, 유급노동 시간의 감소, 여가시간의 감소, 무급노동시간의 약간 증가추세를 보였다(표 2 및 그림 2 참조). 주말의 경우에는 필수시간, 여가시간, 무급노동시간의 증가세와 함께 유급노동시간의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다른 시간영역의 변화는 그래프 상으로 잘 확인된 반면 무급노동시간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나마 주말의 경우 1999년의 데이터에서 38분, 2019년 데이터에서 1시간 23분으로 나타나 변화폭이 큰 편이었고 평일의 경우에는 2019년과 1999년의 무급노동시간 차이가 14분 정도에 그쳤다.

<표 2>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 전체집단

구 분	1999		2009		2019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필수시간	10:02	10:28	9:55	10:31	10:57	12:09
유급노동	7:36	5:27	7:04	3:40	6:52	2:58
무급노동	0:25	0:38	0:29	1:01	0:39	1:23
여가시간	3:59	5:21	3:41	5:39	3:30	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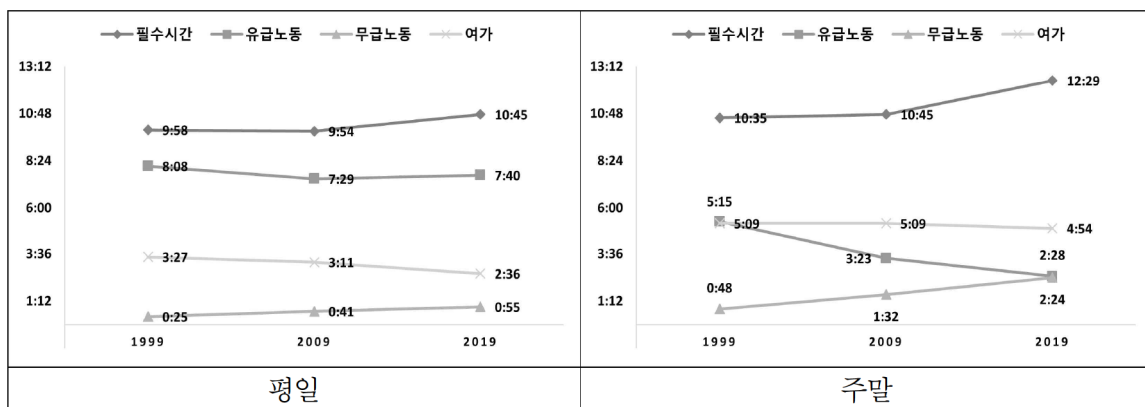
[그림 2]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변화 : 기혼남성 전체집단

2) 2,30대 기혼남성 생활시간 변화

2,30대 기혼남성의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시간 변화를 평일과 주말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일의 경우 필수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으나, 유급노동시간은 2009년에 감소하였다가 2019년 들어서 증가하였다. 여가시간 또한 1999년 3시간 27분이었던 반면 2시간 36분으로 감소하였다(표 3 및 그림 3 참조). 주말의 경우에는 필수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감소하였다.

〈표 3〉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 2,30대

구 분	1999		2009		2019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필수시간	9:58	10:35	9:54	10:45	10:45	12:29
유급노동	8:08	5:15	7:29	3:23	7:40	2:28
무급노동	0:25	0:48	0:41	1:32	0:55	2:24
여가시간	3:27	5:09	3:11	5:09	2:36	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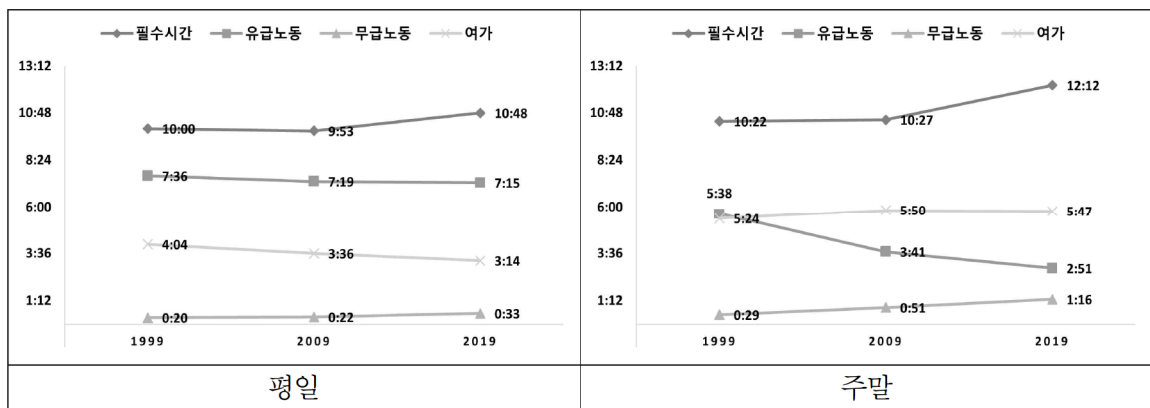
[그림 3]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변화 : 2, 30대 기혼남성

3) 4,50대 기혼남성 생활시간 변화

4,50대 기혼남성의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시간 변화를 평일과 주말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일의 경우 필수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유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줄어들었다(표 4 및 그림 4 참조). 주말의 경우에는 필수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유급노동시간의 뚜렷한 감소와 함께 여가시간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 4,50대

구 분	1999		2009		2019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필수시간	10:00	10:22	9:53	10:27	10:48	12:12
유급노동	7:36	5:38	7:19	3:41	7:15	2:51
무급노동	0:20	0:29	0:22	0:51	0:33	1:16
여가시간	4:04	5:24	3:36	5:50	3:14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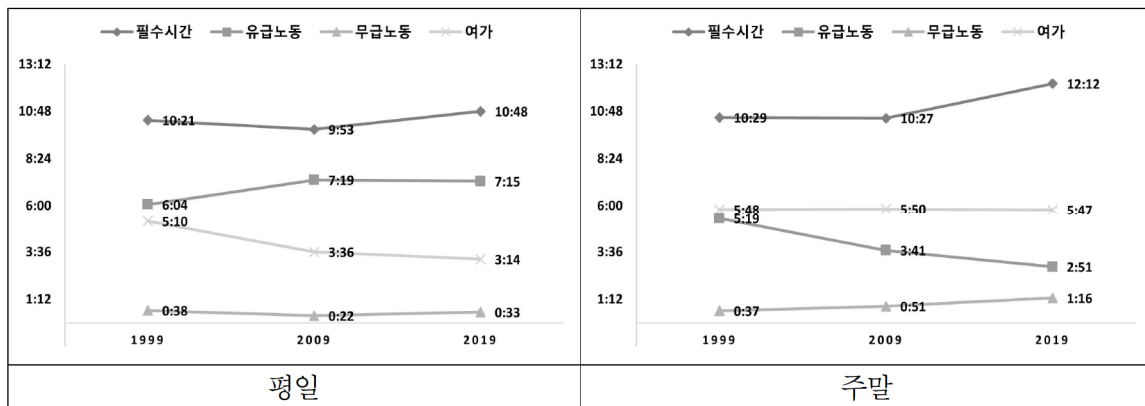
[그림 4]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변화 : 4, 50대 기혼남성

4) 60대 이상 기혼남성 생활시간 변화

4,50대 기혼남성의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시간 변화를 평일과 주말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일의 경우 필수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여가시간이 줄어들었다. 한편 유급노동시간이 다른 세대와 다르게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웠다(표 5 및 그림 5 참조). 주말의 경우에는 필수시간과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유급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여가시간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5〉 기혼남성의 생활시간 : 60대 이상

구 분	1999		2009		2019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필수시간	10:21	10:29	9:53	10:27	10:48	12:12
유급노동	6:04	5:19	7:19	3:41	7:15	2:51
무급노동	0:38	0:37	0:22	0:51	0:33	1:16
여가시간	5:10	5:48	3:36	5:50	3:14	5:47



[그림 5] 평일과 주말의 생활시간 변화 : 60대 기혼남성

세대별로 보았을 때, 2,30대와 60대 이상 기혼남성의 평일 유급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있었다. 반면 모든 세대에서 필수시간이 늘어나는 것만큼 여가시간은 감소하고 있었다. 여가시간이 하루 중 개인의 전형적인 재량적인 시간을 이루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남성의 행복감이 줄어들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주말의 증가세가 크긴 하였으나 2시간을 넘긴 것은 2,30대가 유일하다. 지난 20년간 청년층 기혼남성의 무급노동시간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은 유급노동의 부담이 적은 주말에 집중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평일의 기혼남성 생활세계의 추이는 지난 20년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의 분석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수혜자는 4,50대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들은 자녀돌봄에 있어서 2,30대에 비해 보다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으며 생활의 안정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개입은 어린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큰 2,30대 청년층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무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기존의 남성성에서 탈피하여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연구결과(마경희 외, 2017)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행복의 평균차이 검정

이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에서 활용된 시간부족감과 삶의만족도, 여가만족도라는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들은 선행연구들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대리적 지표로 각각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이 세 변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지표들을 하나로 합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다차원적인 행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간부족감과 삶의만족도, 여가만족도를 행복 변수로 조작하였다. 이 파트에서는 기혼남성의 세대별로 행복감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하였다.

종합적인 행복변수를 보기 전에, 우선 각각의 지표들마다 평균차이가 있는지 검정하였고 가

장 마지막에 행복감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시간부족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코딩하였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기혼남성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간에 여유롭다는 평균값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삶의 만족에 있어서는 2,30대가 가장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4,50대와 6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가만족과 행복에 있어서는 60대 이상 그룹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행복감의 연령효과가 가장 주목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6> 연령대별 시간부족, 삶만족, 여가만족, 행복의 평균 및 평균차이검정 결과

구 분		N	Mean	Std. Dev.	F	scheffe
시간부족 (높을수록 여유)	2,30대 ^a	2,276	1.77	0.775	673.96***	a<b<c
	4,50대 ^b	6,600	2.02	0.833		
	60대 이상 ^c	3,280	2.55	0.907		
삶만족	2,30대 ^a	2,276	3.38	0.928	9.79***	b,c<a
	4,50대 ^b	6,600	3.31	0.876		
	60대 이상 ^c	3,280	3.27	0.852		
여가만족	2,30대 ^a	2,276	2.89	0.996	65.10***	a<b<c
	4,50대 ^b	6,600	3.04	0.957		
	60대 이상 ^c	3,280	3.18	0.857		
행복	2,30대 ^a	2,276	8.04	2.081	174.80***	a<b<c
	4,50대 ^b	6,600	8.36	2.047		
	60대 이상 ^c	3,280	9.00	1.947		

* p<.05, ** p<.01, *** p<.001

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분석의 최종단계로서 기혼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행복이 시간부족감과 삶의만족, 여가만족으로 구성되어있는 관계로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에 한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일과 주말에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연령대(+), 가구소득(+), 학력(+), 상용직(+), 성역할(+),이 영향을 미쳤으며, 시간 요인으로서는 필수 시간(+),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이 영향을 미쳤다. 주말의 경우에는 연령대(+), 가구소득(+), 학력(+),이 영향을 주었으며, 필수시간(-), 유급노동시간(-), 무급노동시간(-)이 영향을 주었다.

전체 기혼남성의 평일, 주말의 행복을 설명하는 변수 중 공통적인 부분은 연령대, 소득, 학력 이었으며, 이 세 변수는 모두 정적인(+) 인과성을 나타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고소득 고학 력일수록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이었으며, 한국의 기혼남

성의 행복과 관련해서 소득과 학력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아울러 평일에는 상용직이 비상용직에 비해 더 행복하였고,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에 근무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의 직군에서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일에 상용직에 근무하는 기혼남성의 안정감과 비교적 규칙적인 출퇴근 패턴이 행복감을 높이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성역할이 비전통적일수록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함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성역할 인식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 요인에 있어서 유급노동시간은 평일과 주말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는 주은선(2016)의 연구결과와 같이 유급노동이 길어질수록 행복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기혼남성의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며, 노동시간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평일의 필수시간은 행복에 정적영향을 주었는데, 주말에는 부적효과를 보였다. 이는 평일에 필수시간을 누리는 것이 행복을 높이지만, 주말의 경우 평일의 수면과 자기관리시간이 모자랐던 만큼 이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한편, 무급노동시간은 평일에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말에 행복감을 낮추는 변수였다. 이는 김경미와 계선자(2018)의 연구결과와 상이한데, 일가정양립과 관련된 인식의 수준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이 연구에서처럼 인식이 아닌 실제 행동의 차원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가정양립이라는 것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무급노동의 증가로 연결되기 보다는 자기계발이나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인식과 현실의 행동은 행복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직접적인 돌봄을 많이 수행하기 보다는 가사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정생활에서 기혼남성의 역할은 단지 가사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며, 일가정양립 정책에 있어서도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일가정양립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유급노동을 줄이고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의 확보에만 치중되기보다 가정내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에 미루어보면 남성들이 비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지지한다는 많은 통계자료들이 실제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남성의 내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남성의 일가정양립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뿌리깊게 자리하는 남성의 가부장성을 해체하고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깊고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여가시간의 경우 평일에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주말에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말의 여가시간이 상향평준화 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평일에 누리는 여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전체 기혼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2019년)

변수	평일			주말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연령대	0.5077	0.0474	10.72***	0.6817	0.0596	11.44***

	평일			주말		
변수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가구소득	0.0737	0.0141	5.25***	0.0557	0.0171	3.26**
학력	0.1781	0.0237	7.5***	0.1132	0.0300	3.77***
상용직	0.1959	0.0620	3.16**	0.0524	0.0761	0.69
성역할	0.0633	0.0337	1.88 [†]	-0.0401	0.0415	-0.97
필수시간	0.0010	0.0004	2.41*	-0.0016	0.0004	-3.69***
유급노동	-0.0008	0.0004	-2.19*	-0.0017	0.0004	-4.47***
무급노동	0.0009	0.0006	1.6	-0.0011	0.0005	-2.28*
여가	0.0030	0.0004	7.96***	0.0002	0.0004	0.46
상수	5.1751	0.5128	10.09***	7.9833	0.5806	13.75***
	R ² =.106, adj R ² =.105, F=70.32			R ² =.077, adj R ² =.075, F=32.81		

† p<.1, * p<.05, ** p<.01, *** p<.001

다음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평일과 주말에 따른 행복의 영향요인을 검정하였다. 우선 각 세대별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평일의 여가시간이 늘어날수록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가시간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중요한 변인이었는데, 주말보다는 평일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보다 차별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2,30대 그룹은 평일과 주말에서 여가시간을 제외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요일의 구분 없이 학력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직업의 안정성(상용직일 경우)과 소득의 효과성이 정적 인과관계를 보였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행복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시금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4,50대 그룹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소득, 학력, 상용직 여부)이 중요한 요인이었고, 평일의 경우 비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행복하였다. 시간요인의 경우 주말의 경우에 효과성을 보였으며 필수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할수록 행복감을 느꼈고 무급노동시간은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4,50대 그룹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주말의 재량시간이 감소할수록 행복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통상 4,50대는 직업적 안정성을 비교적 갖추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자리를 잡기 때문에 개인별로 재량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가치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다르지는 않았다. 한편 평일의 성역할 인식이 비전통적일수록 행복하였고 주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성의 성역할 인식과 실제 행동의 괴리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일-가정의 역할과중을 경험하고 있으며(Arber et al., 1985), 2014년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분석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민경선, 2018).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그룹에서는 학력과 유급노동이 평일과 주말의 행복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주말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행복감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유급노동시간인데,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 유급노동의 증가가 행복감

을 저해하는 결과이면서도 현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급노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생활을 꾸려나가기 힘든 팍팍한 삶이라는 점에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는 65세 이상의 연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0대 중후반부터 은퇴가 시작되고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60대 이상을 고령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남은 삶을 보다 젊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하여 유급노동을 해야만 하는데, 한국의 현실은 대부분의 중고령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게 되어 불안정한 삶과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표 13〉 연령대별 기혼남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2019년)

	2,30대						4,50대						60대 이상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변수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Coef.	Std Err.	t
가구소득	0.0696	0.0383	1.82 [†]	0.0542	0.0500	1.08	0.1311	0.0196	6.7***	0.1310	0.0234	5.6***	0.0250	0.0259	0.97	-0.0322	0.0313	-1.03
학력	0.2827	0.0728	3.89***	0.4054	0.1036	3.91***	0.1867	0.0336	5.56***	0.1023	0.0421	2.43*	0.1893	0.0379	5**	0.1170	0.0458	2.55**
상용직	0.3013	0.1664	1.81 [†]	-0.1730	0.2162	-0.8	0.3365	0.0812	4.15***	0.2597	0.0992	2.62**	-0.1109	0.1169	-0.95	-0.1105	0.1406	-0.79
성역할	0.0088	0.0801	0.11	0.1253	0.1032	1.21	0.0806	0.0467	1.73 [†]	-0.0485	0.0583	-0.83	0.0480	0.0625	0.77	-0.1693	0.0713	-2.37**
필수시간	0.0010	0.0010	0.98	-0.0008	0.0012	-0.66	0.0306	0.0006	1.04	-0.0020	0.0006	-3.58***	0.0010	0.0008	1.2	-0.0010	0.0008	-1.17
유급노동	-0.0001	0.0008	-0.13	-0.0009	0.0011	-0.79	-0.0006	0.0005	-1.21	-0.0018	0.0005	-3.53***	-0.0018	0.0007	-2.69**	-0.0018	0.0007	-2.56*
무급노동	0.0015	0.0013	1.19	-0.0004	0.0012	-0.34	0.0302	0.0008	0.29	-0.0022	0.0007	-3.29**	0.0000	0.0010	-0.04	-0.0001	0.0010	-0.08
여가	0.0033	0.0010	3.22***	0.0005	0.0011	0.45	0.0334	0.0005	6.57***	-0.0004	0.0005	-0.84	0.0016	0.0007	2.23*	0.0009	0.0007	1.3
상수	5.0804	1.1936	4.26***	6.2497	1.5513	4.03***	5.7139	0.6577	8.69***	9.3600	0.7241	12.93***	7.8862	0.9826	8.03***	10.0172	0.9861	10.16***
	R ² =.055, adj R ² =.047, F=7.19			R ² =.054, adj R ² =.041, F=4.21			R ² =.098, adj R ² =.086, F=37.17			R ² =.065, adj R ² =.061, F=16.18			R ² =.106, adj R ² =.102, F=23.8			R ² =.077, adj R ² =.070, F=11.05		

+ p<.1, * p<.05, ** p<.01, *** p<.001

V. 결론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개인의 행복감으로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행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기초적 욕구(basic needs)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빠른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통하여 삶의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어 복지에 대한 기대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기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기반하에 설계된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현대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고, 기존의 복지제도들이 변화하는 산업과 경제적 환경들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제도와 정책은 그러한 과거의 유산을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철학과 가치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기혼남성의 삶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가정양립에 대한 강조와 이를 진정으로 이룩할 수 있는 성평등의 논의가 비교적 최근의 논의임을 감안한다면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을 구성하고 살아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집단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지대한 기득을 누리고 있는 남성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기득을 누리는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이 연구의 분석에서도 기혼남성을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그룹핑 해 보았을 때 행복의 양상이 많이 달라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행복을 결과변수로 놓고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과 시간 요인들을 분석모델에 투입하였을 때 세대에 상관없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공통적인 변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간 요인에 있어서 유급노동이 행복을 저해하고, 무급노동이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남성은 무엇으로 행복한가? 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추측컨대, 남성은 일로 자신을 증명하고 일을 통해 가족부양의 책임을 현실화 시키는 등 다양한 차원의 교육을 또래집단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주고받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행복을 저해한다는 것은 남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빠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한국사회에서 일과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무급노동은 가사와 돌봄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하루의 시간 중 극히 적은 비율이라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가정생활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세대별로 구분한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2,30대의 청년층 기혼남성들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행복의 영향력은 현실태에 대한 엄격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몇 년 전부터 청년에 대한 복지적 조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일구어나가는 동계층 역시 중요한 복지대상자로 조명되어야 한다. 현 청년층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미혼인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역동들이 행복과 부담을 동시에 주기도 한다. 더불어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스펙과 고소득, 취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소진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청년 세대의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역할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4,50대의 중장년층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행복을 찾는 듯 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학력과 소득에 얼마나 많은 중점을 두어왔는지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행복을 설명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가치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유급노동을 원해서 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세대와는 달리 60대 이상에서 유급노동이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 유급노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로움을 담보하여야 하고 원하는 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공급되고는 있으나 일자리의 질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보다 명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혼여성의 생활시간과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검증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중치 부여 등의 통계적 방법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행복에 대한 측정과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상준·문진영, 2018, 「소득은 행복의 독립변수인가? 조절변수인가? - Eudiamonia와 Hedonism 관점에 기반한 논쟁을 중심으로 -」, 『생명연구』, 50(1): 361-408.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부학연구』, 21(2): 95-130.
- 김경미·계선자, 2018,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과 행복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4): 103-119.
- 김경식·이루지, 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 및 행복: 국가통계자료 이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424-433.
- 김승권·장영식·조홍식·차명숙, 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미, 2013, 「한국의 일·가정 양립 현실과 대안: 우리, 행복하기 위한 조건」, 『월간 복지동향』, 175: 13-18.
- 김영미, 2014, 「복지국가 제도와 남녀의 무급노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1(1): 143-177.
- 김진욱·권진, 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년~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181-215.
- 김진욱·임현·최영준·권진·박수빈, 2020, 『헌법 10조 시대 개막을 위한 전략구상』,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 마경희·문희영·조서연·김리나, 2017, 「지배적 남성성의 균열과 변화하는 남성의 삶 - 남성들 내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진영, 2012, 「이스털린 역설에 대한 연구 - 만족점의 존재여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64(1): 53-77.
- 문진영, 2020, 『행복학 연구: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가?』, 미발간저서(출간중).
- 민경선, 2018, 「경제활동하는 남녀의 여가생활 격차와 만족도」, 『미디어, 젠더&문화』, 33(3): 5-42.
- 박미석·김미영·김경아·전지원, 2019, 「청년세대의 일·삶 균형 수준과 행복 요인: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를 활용한 다국가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79-97.
- 박민정, 2015, 「중산층의 여가활동 특성 및 여가생활만족도와 행복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2년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121-142.
- 변미리·최정원·박민진·이혁준, 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 보고서』, 서울연구원.
- 신종화, 2005, 「현대성과 여가: ‘노동중심’ 사회에서 ‘여가’ 사회로의 관심의 이동」, 『한국학논집』 32: 275-303.
- 안주엽·이경희·오선정·강동우·김주영·정세은·손호성·박진·이선연·Andrew Clark·Garry F. Barrett·Fumio Ohtake·Kadir Atalay, 2017, 「일과 행복(I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노동연구원.
- 이유진·황선환, 2018, 「가구소득과 여가시간에 따른 행복지수」,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2(1): 86-96.

- 이재완 · 강혜진, 2018, 「위라벨과 삶의 만족: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 장미나 · 한경혜, 2011,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들의 일상생활경험: 경험표집법(ESM)으로 살펴본 남녀의 일상시간 구성과 정서경험 비교」, 『가족과 문화』, 23(1): 1-39.
- 주은선, 2016,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7): 750-759.
- 최영준 · 김명일 · 유정민 · 석진주 · 송은주, 2019, 「행복과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는 우리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시대 행복정책연구원 보고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통계청, 2019, 『국민 삶의 질 2019』, 통계청.
- Arber, S., Gilbert, G. N. and Dale, A., 1985, "Paid Employment and Women's Health: A benefit or a source of role strain",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7: 375-400.
- Godbey, G. and Robinson, J., 1997, "The increasing prospects for leisure", *Parks & Recreation*, 32(6): 74-82.
- Hektner, J. M., Schmidt, J. A., and Csikszentmihalyi, M., 2007, *Experience sampling method: Measuring the quality of everyday life*, Sage Publications, Inc.
- Juster, F. T. and Stafford, F. P., 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2): 471-522.
- Kesebir, P. and Diener, E., 2008, "In Pursuit of Happiness: Empirical Answers to Philosophical Ques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17-125.
- Lu, L., 2001, "Understanding Happiness: A look into the Chinese Folk Psycholog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407-432.
- McMahon, D. M., 2006, *Happiness: A History*, NY: Atlantic Monthly Press.
- Oishi, S., Graham, J., Kesebir, S., and Galinha, I. C., 2013, "Concepts of Happiness Across Time and Cul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 559-577.
- UN, 2020, "World Happiness Report", UN.
- Virtanen, M., Stansfeld, S. A., Fuhrer, R., Ferrie, J. E., and Kivimäki., 2012, "Overtime Work as a Predictor of Major Depressive Episode: A 5-Year Follow-Up of the Whitehall II Study", *PLoS ONE*, 7(1): e30719.
- OECD Better Life Index, www.oecdbetterlifeindex.org.

A Study on the Effect of Living Time Composition on Happiness in Married Men in Korea

Kwon, Jin
(Yemyung Graduate University)
Park, Subin
(Sogang University)
Kim, Jinwook
(Sogang University)

Subject Socialwelfare, Socialpolicy, Family

Key words Happiness, Work-Life Balance, Married Man, Time Use Data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s in living hours of married men in Korea over the past 20 years and to clarify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The study technically explored changes in living time over 20 years using three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living time survey data from 1999, 2009, and 2019. After that, happiness was manipulated as the sum of time shortage,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using 2019 survey data, and the average differenc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happiness were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all married men and young people, middle-aged, and elder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igher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the happier it was in the case of regular workers, and the leisure time on weekdays showed a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with happiness. Paid working hours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happiness, and unpaid working hours were also a mechanism to lower men's happiness. Even when analyzed by generation, it was shown that efforts to pursue happiness that deviated from socioeconomic factors were needed as socioeconomic facto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elderly, paid working hours were found to b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happiness, and it was argued that policy efforts were needed to guarantee income and find the value of work in the elderly's life.

접 수 일 : 2021년 10월 6일

심사완료일 : 2021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1일